

'26.2월 금융시장 전망

국내외 채권시장 전망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되었으나 본 자료의 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관련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Executive Summary

'26.2월 금융시장 전망

01 1월 리뷰

- [미국] 실업률이 반락하는 모습 보인 가운데 일본 재정우려로 인한 급등세에 연동되며 금리 상승
-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후퇴하며 단기물 중심으로 금리 상승. 연준 차기 의장 지명을 앞두고 독립성 우려 부각
- [한국]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를 삭제하며 매파적 동결. 포워드 가이던스도 기존 3명 인하 → 1명
- 국고시장 연초효과 부재. 일본 금리 급등에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발언 부담까지 더해지며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

02 미국 국채시장

- 실업률 상승 압력 제한적인 가운데 물가 반등 압력 대기. 연준은 관망모드 이어지며 올해 기준금리 동결 전망
- 연초 고용 둔화는 부재하며, 여름 전후 물가 반등 우려 잔존. 연준에서 발표해주는 중립금리는 상향 조정
- 연중 인하 기대 퇴색되며 미국 10년물 기준 4% 중후반까지 상승할 것. 3개월과 12개월 투자의견 중립
- 지준관리성 매입은 단기채 수급에 유리, 연준의 독립성 우려는 장기금리 상승 요인. 스티프닝 압력 우세

03 한국 국채시장

- 하반기 인상 우려 속 추경 부담까지 가세. 대외 금리 상승에 연동 흐름 전망. 투자의견 중립
- 2월 금통위에서 성장률 상향 조정 예상. 과거 평균 동결 지속 기간 고려 올해 여름 인상 경계감 주의
- 미국의 인하 기대감 후퇴와 연준의 연내 동결 전망에 맞춰, 국고채 금리도 추가 상승 압력 가세
- 당초 예상(2분기)보다 빨리 들어온 추경 우려에 규모 구체화 전까지 커브는 스티프닝 압력 우세하다고 판단

04 크레딧과 신흥국

- 크레딧 스프레드 역사적 저점 수준에서의 레벨부담 여전, 이자수익 중심 전략 유효. 투자의견 중립 유지
- 해외 투자자의 달러 헤지 비용 축소 및 MBS대비 회사채 스프레드 매력에 스프레드 상단 제한 되겠으나,
- 연초 실적발표 기간 동안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지출 추가 상향조정 시, 추가 채권 발행 부담 확대 및
-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과 같은 스프레드 확대 위험 상존

글로벌 채권 Review

'26.2월 금융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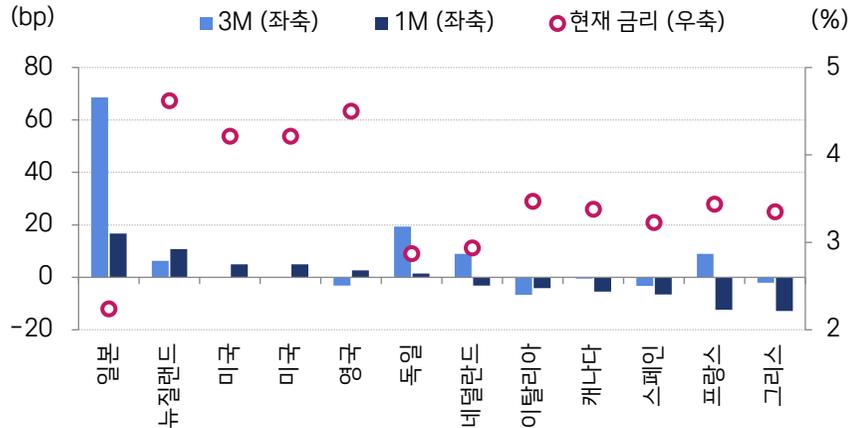
		글로벌 종합	선진국 정부채	글로벌 투자등급	글로벌 하이일드	미국 정부채	유로존 정부채	미국 투자등급	미국 하이일드	유럽 투자등급	유럽 하이일드	신용시장 정부채 (\$)	신용시장 정부채 (LC, U\$ H)	신용시장 정부채 (LC, U\$ UH)	한국 국공채	한국 회사채
Performance	1M %	0.14	(0.09)	0.38	0.76	(0.09)	0.38	0.29	0.67	0.37	0.66	0.53	0.31	2.06	(1.42)	(0.08)
	3M %	0.63	0.03	1.20	2.16	0.20	(0.29)	0.74	1.82	(0.07)	1.15	1.67	1.37	6.11	(3.14)	(0.28)
	YTD %	0.14	(0.09)	0.38	0.76	(0.09)	0.38	0.29	0.67	0.37	0.66	0.53	0.31	2.06	(1.42)	(0.08)
	1Y %	7.70	6.12	10.03	10.09	5.66	1.14	7.49	7.87	2.95	5.27	13.28	7.78	23.91	(3.00)	2.04
	3Y %	8.99	4.01	17.97	30.33	8.55	7.55	15.17	29.29	14.62	24.63	31.82	19.47	35.04	8.79	14.27
Spread	현재 bp	41.7	6.2	74.8	267.5	-	-	72.0	256.1	74.5	247.5	244.6	-	-	-	-
	1M bp	(2.8)	(0.8)	(5.0)	(14.5)	-	-	(5.5)	(10.3)	(3.9)	(17.7)	(8.8)	-	-	-	-
	3M bp	(7.3)	(1.7)	(5.1)	(25.8)	-	-	(6.5)	(24.8)	(2.2)	(25.8)	(17.7)	-	-	-	-
	YTD bp	(2.8)	(0.8)	(5.0)	(14.5)	-	-	(5.5)	(10.3)	(3.9)	(17.7)	(8.8)	-	-	-	-
	1Y bp	(10.8)	(3.3)	(9.9)	(12.5)	-	-	(6.5)	(4.5)	(16.4)	(46.6)	(71.4)	-	-	-	-
	3Y bp	1.0	(6.9)	(58.2)	(176.9)	-	-	(45.4)	(163.5)	(77.6)	(193.3)	(199.3)	-	-	-	-
YTW	현재 %	3.56	3.24	4.37	6.33	3.99	2.90	4.85	6.62	3.18	4.80	6.78	-	5.88	3.30	-
	1M bp	4.1	5.8	2.0	2.4	9.8	(1.2)	3.6	8.9	(2.0)	(14.6)	(2.5)	-	0.7	16.1	-
	3M bp	12.9	17.6	8.1	(18.7)	8.0	14.2	3.2	(15.5)	19.9	(5.0)	(4.4)	-	(2.9)	43.3	-
	YTD bp	4.1	5.8	2.0	2.4	9.8	(1.2)	3.6	8.9	(2.0)	(14.6)	(2.5)	-	0.7	16.1	-
	1Y bp	(10.4)	5.1	(34.0)	(61.3)	(43.2)	14.9	(45.2)	(57.7)	6.2	(45.1)	(96.0)	-	(45.2)	53.8	-
	3Y bp	8.4	38.0	(36.5)	(177.1)	11.4	(1.1)	(11.2)	(151.9)	(73.1)	(224.9)	(133.2)	-	(73.5)	(12.5)	-
Duration	현재 년	6.34	6.90	5.98	3.03	5.87	7.06	6.93	3.00	4.56	2.86	6.51	-	5.39	7.89	-

자료: Bloomberg/ 주: 신용국 달러표시 정부채 - JP morgan EMBIG Diversified Core, 신용국 로컬통화표시 정부채 - JP morgan GBI-EM, 그 밖의 지수는 Bloomberg Barclays, 1월 26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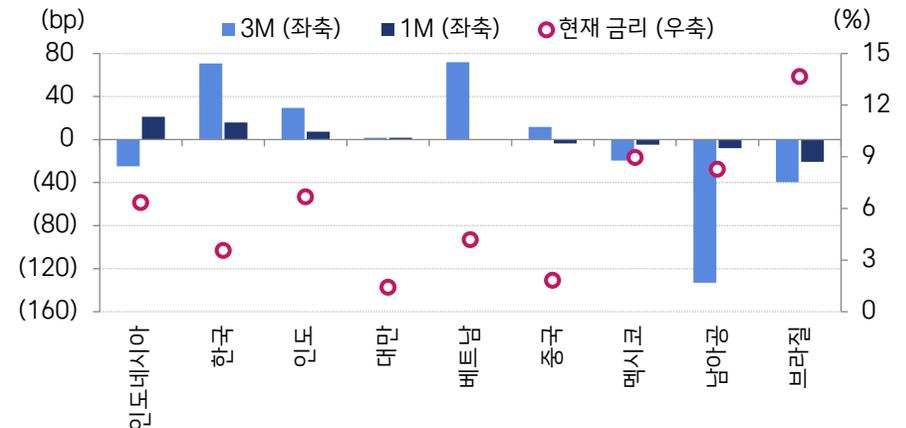
글로벌 채권 Review

'26.2월 금융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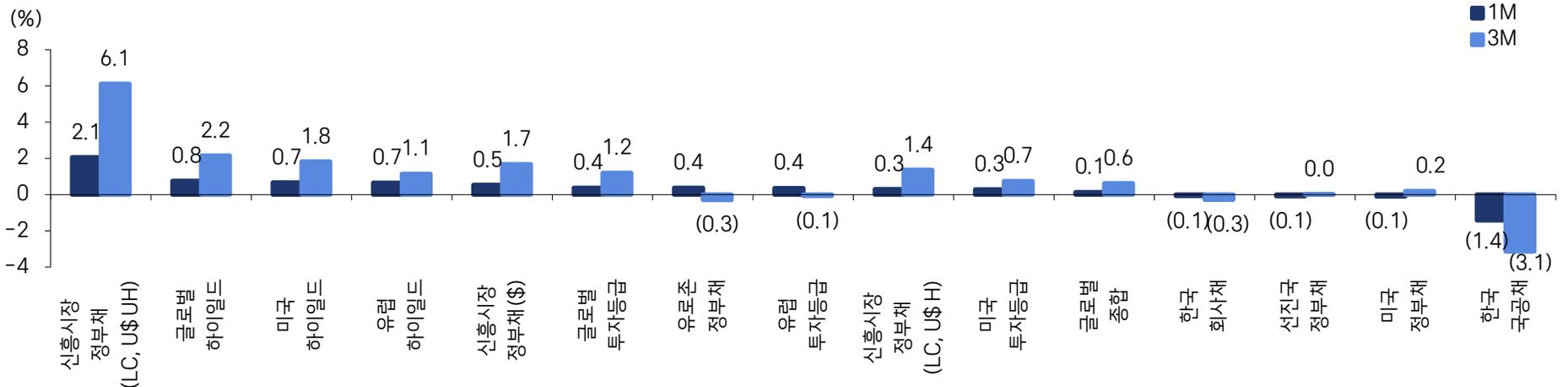
선진국 국채 10년 금리 변동과 현재 금리



신흥국 국채 10년 금리 변동과 현재 금리



채권 자산군별 총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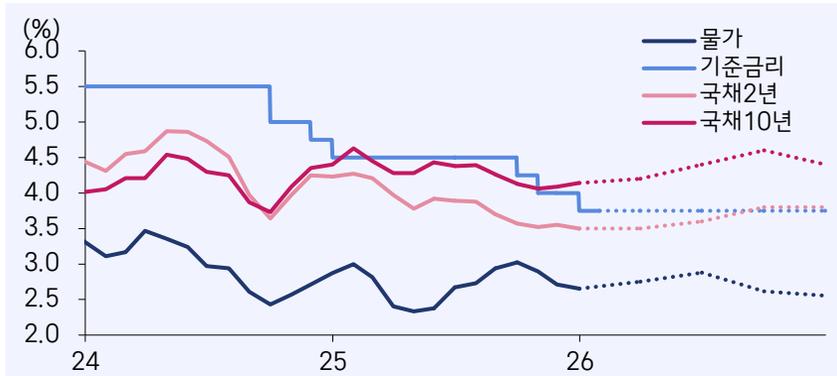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주: 신흥국 달러표시 정부채-JP morgan EMBIG Diversified Core, 신흥국 로컬통화표시 정부채- JP morgan GBI-EM, 그 밖의 지수는 Bloomberg Barclays, 1월 26일 기준

채권시장 요약

'26.2월 금융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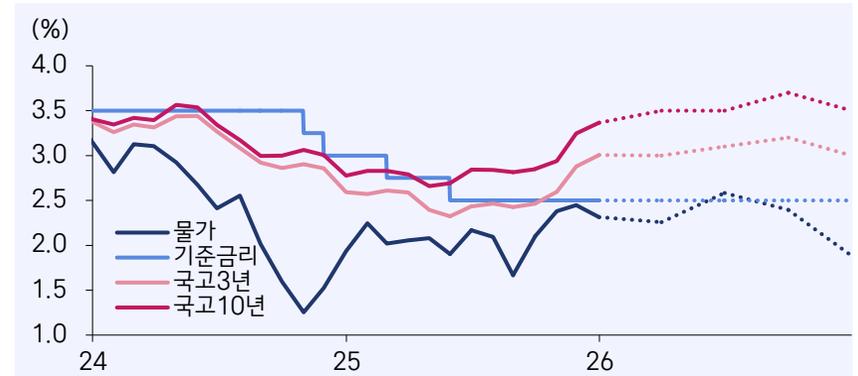
미국

	1Q26	2Q26	3Q26	4Q26
기준금리	3.75	3.75	3.75	3.75
국채 2년	3.50	3.60	3.80	3.80
국채 10년	4.20	4.40	4.60	4.40
2/10 스프레드	0.70	0.80	0.80	0.60



한국

	1Q26	2Q26	3Q26	4Q26
기준금리	2.50	2.50	2.50	2.50
국고 3년	3.00	3.10	3.20	3.00
국고 10년	3.40	3.50	3.70	3.50
3/10 스프레드	0.50	0.40	0.50	0.50



'26.2월 금융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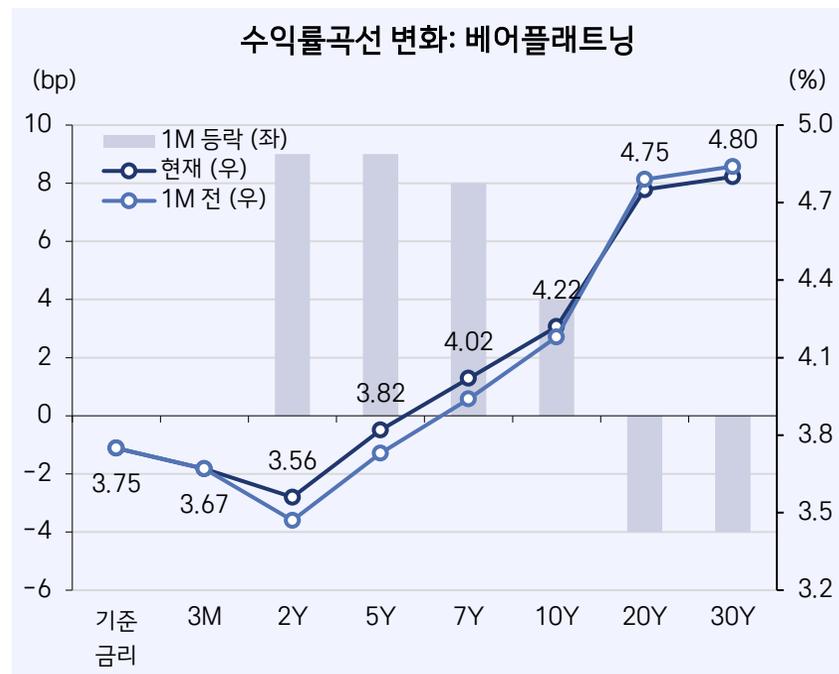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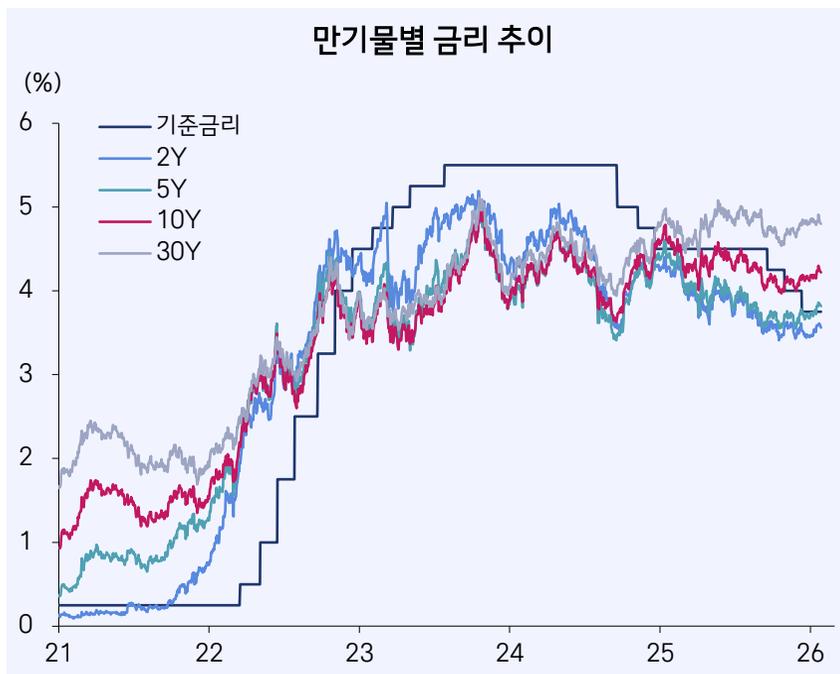
미국 채권

리뷰 금리 상승, 베어 플래트닝

'26.2월 금융시장 전망

양호한 경제 지표 속 인하 기대 후퇴. 일본 재정 우려도 가세하며 금리 상승

- 실업률이 반락하는 모습 보인 가운데 주간 고용지표 양호하게 발표. 일본 재정우려로 인한 급등세에 연동되며 금리 상승
-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후퇴하며 단기물 중심으로 금리 상승. 연준 차기 의장 지명을 앞두고 독립성 우려도 잔존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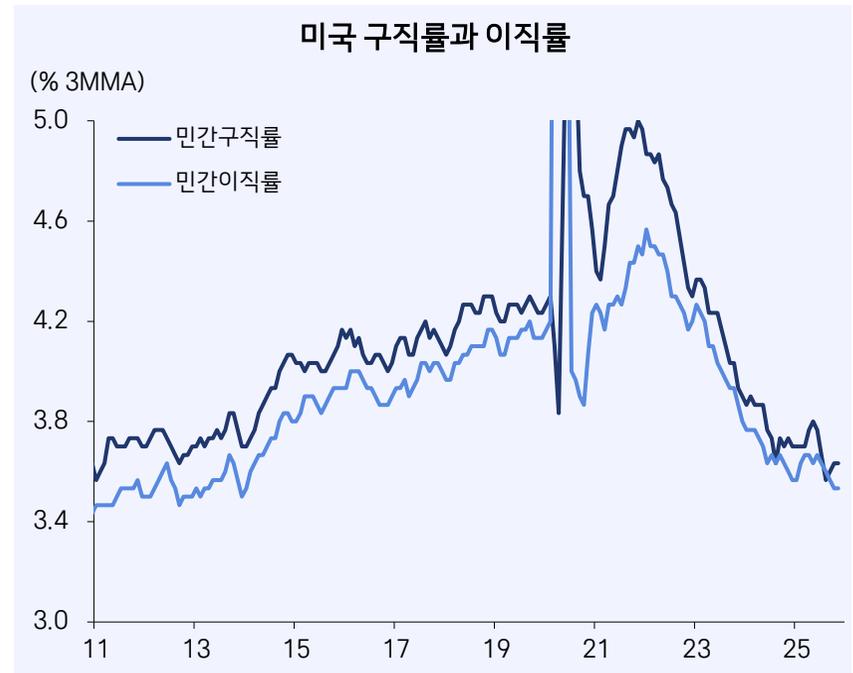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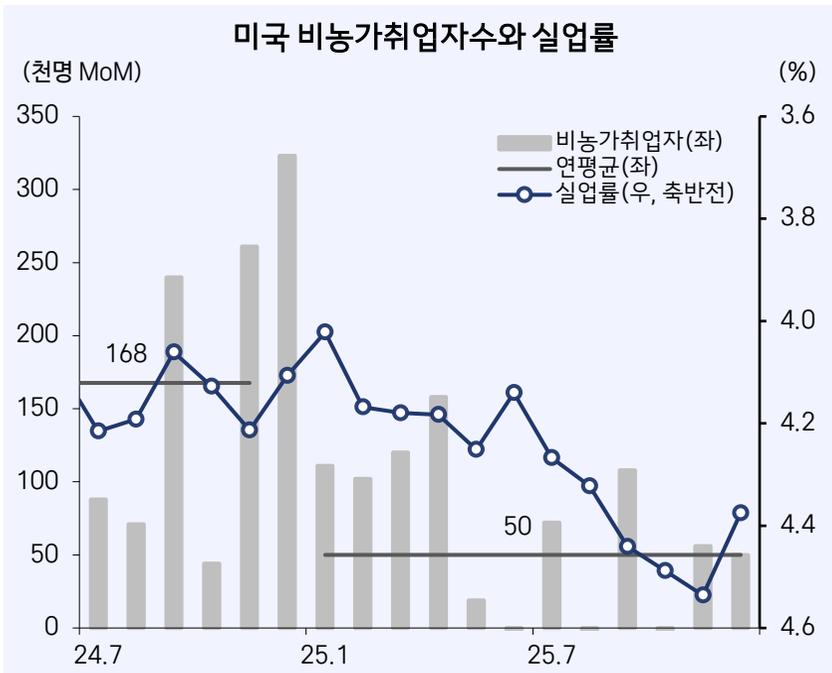
주: 1월 26일 기준, 자료: Bloomberg, CEIC,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경기 낮아지는 손익분기점 고용

'26.2월 금융시장 전망

양적 고용이 둔화됐음에도 실업률 안정. 구직과 이직률 모두 낮게 유지

- 24년 월평균 17만명 고용 창출, 25년은 5만명에 불과. 그럼에도 실업률 급등은 제한적인 배경은 손익분기 고용이 낮아진 까닭
- 기존에 전망했던 연초 고용 둔화는 부재할 가능성 높아짐. 새로운 직업을 찾지도, 기존 직업을 그만두지도 않고 있음
- 비자발적, 재진입 실업자 비중 감소. 기업들의 대규모 해고가 부재하며, 고용시장으로 돌아올 사람도 다 돌아온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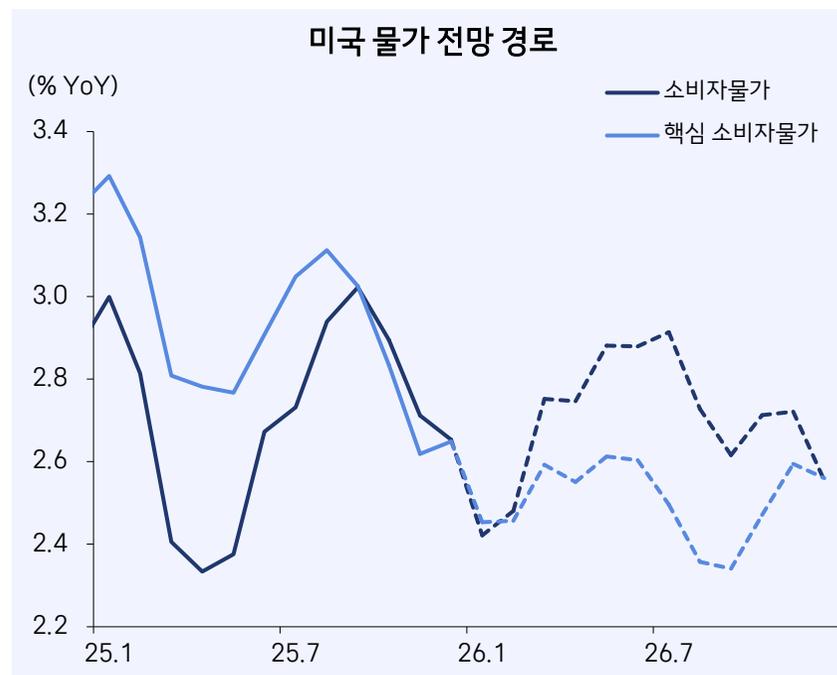
주: 1월 26일 기준, 자료: Bloomberg, CEIC,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물가 기대인플레 반등, 물가 Hump 대기

'26.2월 금융시장 전망

2~3분기 물가 반등 구간. 기대인플레 재차 반등

- 올해 3~7월 물가 반등 전망. 작년 낮은 에너지 가격과 기업들의 선제적 재고 비축으로 낮게 유지됐던 물가 구간 기저효과 시작
- 연초 이후 기대인플레는 2.5% 수준으로 반등. 1년 기대인플레 2.2%까지 안정됐다가 다시 올라오는 중
- IEEPA 위헌판결 대기 (빠르면 2.20일). 위헌 가능성 높으나, 기업들은 기존에 올린 가격을 다시 되돌리지는 않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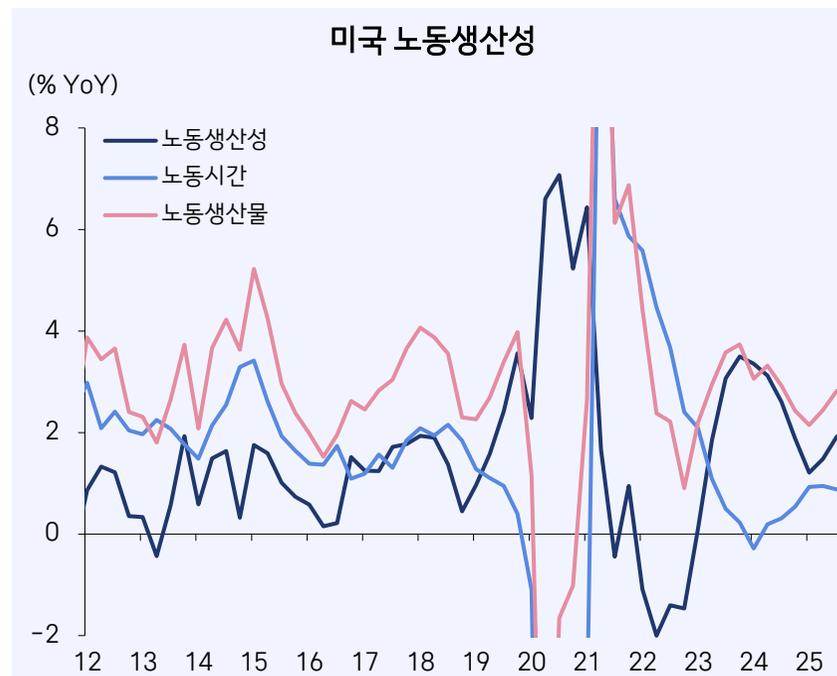
주: 1월 26일 기준, 자료: Bloomberg, CEIC,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정책 생산성 향상으로 중립금리 빠른 상향 조정

'26.2월 금융시장 전망

중립금리 3.1~3.6% 추정. 빠르게 상향되며 지금도 중립 수준

- 24.4Q 추정 중립금리는 2.7~3.2% 수준. 25.4Q 추정은 3.1~3.6% 수준으로 1년 만에 50bp 상향
- 배경은 AI 등장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미국 전체 노동시간이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물은 오히려 증가



주: 1월 26일 기준, 자료: Bloomberg, CEIC,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정책 연준 의장 교체 대기

'26.2월 금융시장 전망

파월보다 비둘기파적일 차기 연준 의장 1명, 중도 8명, 매파 4명

- 트럼프의 차기 연준 의장 임명 대기. 릭 라이더와 케빈 워시가 유력, 두 후보자 모두(마이런 제외) 기존 연준 위원들보다 비둘기파
- 임명되고 확정되는 과정, 연준의장으로 처음 나설 6월 회의 전후로 연준의 독립성 우려 자극할 것으로 전망
- 기존의 연준 위원 중도파 8명, 매파 4명의 성향을 고려하면, 1명의 의장이 연준의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지 못할 것

연준 정책 성향 스펙트럼



연준 의장 후보 특징

후보자	확률	현재	성향	현재 물가 및 경기 판단
릭 리더	35%	블랙록 채권 CIO	실용 비둘기	금리를 3% 수준까지 빠르게 낮춘 뒤 상황을 봐야한다고 발언 완화적 정책 선호, 시장 친화적
케빈 워시	33%	전 연준이사	매파, 전략적 완화	원래는 매파적 성향이나 최근 완화적 금리를 많이 낮출 수 있다고 발언 시가 생산성을 높여 인플레이션 없이 저금리 가능하다는 입장
크리스토퍼 윌러	16%	현 연준 이사	중립 매	데이터가 금리 인하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신중 매파 인플레이션 재발에 대해 매우 경계
케빈 헤셋	7%	국가경제 위원회 위원장	강한 비둘기	트럼프 저금리 정책 적극적으로 옹호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연준의 독립성보다 행정부와의 공조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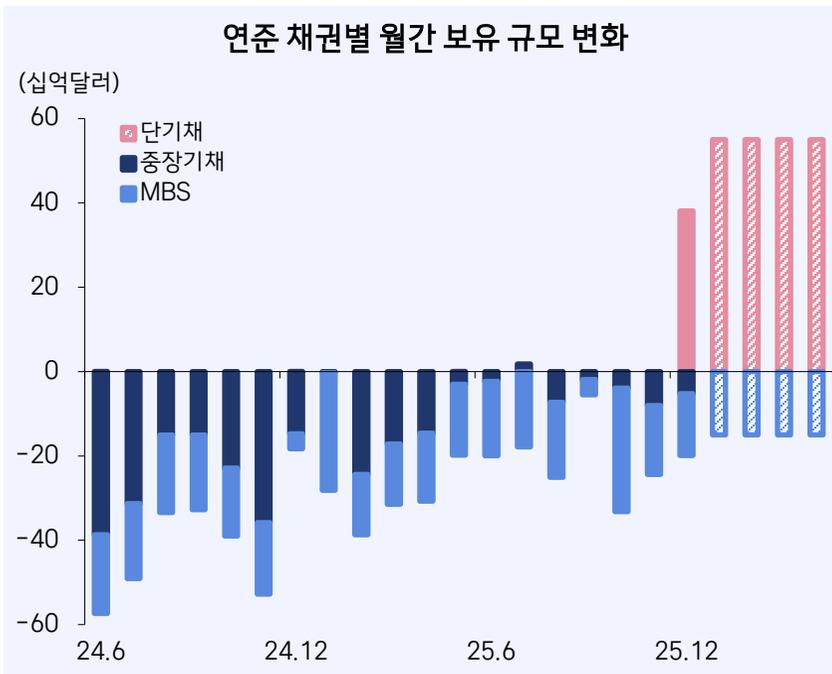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EIC,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진한 글씨는 투표권 있는 연준위원, 1월 26일 기준

수급 연준의 지준관리성 매입, 단기채 수급 우호적

'26.2월 금융시장 전망

연준의 QT 종료와 지준관리성 매입 재개로 단기채 중심으로 수급 양호

- 연준은 작년 12월 이후 매월 550억달러 규모의 단기채 매입 계획 발표(400억달러 지준관리성 매입, 150억달러 만기도래 MBS 재투자)
- 재무부의 현금잔고 재축적 기간에 맞춘 정책 변화에 연준의 단기채 보유 비중 상승. 재무부 발행 구조와의 괴리 축소 기대
- 단기채 수급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 재무부가 장기채 발행 비중 확대되는 시점(빠르면 5월)에 장기채 공급 부담 우려 부각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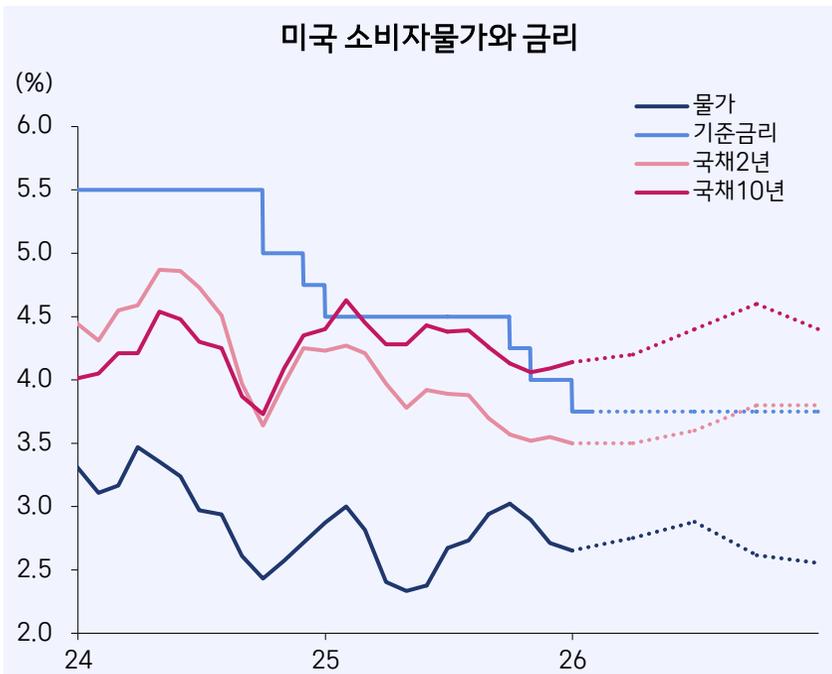
주: 1월 26일 기준, 자료: Bloomberg, CEIC,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결론 올해 금리 동결 전망. 투자 의견 중립

'26.2월 금융시장 전망

실업률 상승 압력 제한적인 가운데 물가 반등 압력 대기. 연내 동결 전망

- 인하 기대 시점 지연중. 연초 고용 둔화가 부재한 점, 여름 전후 물가 반등 우려되는 점, 중립금리 상향된 점 고려 연내 동결 전망
- 연중 인하 기대 퇴색되며 미국 10년물 기준 4% 중후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 3개월과 12개월 투자의견 중립 제시
- 지준관리성 매입은 단기채 수급에 유리, 연준의 독립성 우려는 장기금리 상승 요인. 스티프닝 압력 우세할 것



미국 금리 전망 테이블

	1Q26	2Q26	3Q26	4Q26
기준금리	3.75	3.75	3.75	3.75
국채 2년	3.50	3.60	3.80	3.80
국채 10년	4.20	4.40	4.60	4.40
2/10 스프레드	0.70	0.80	0.80	0.60

주: 1월 26일 기준, 자료: Bloomberg, CEIC,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26.2월 금융시장 전망

한국 채권

리뷰 금리 상승, 베어스티프닝

'26.2월 금융시장 전망

통화 정책 기조 본격 동결 반영. 추경 우려와 일본 재정 확대 소식에 금리 상승

- 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를 삭제하며 매파적 동결. 포워드 가이드선도 기존 3명 인하에서 1명으로 감소
- 국고시장 연초효과 부재. 일본 금리 급등에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발언 부담까지 더해지며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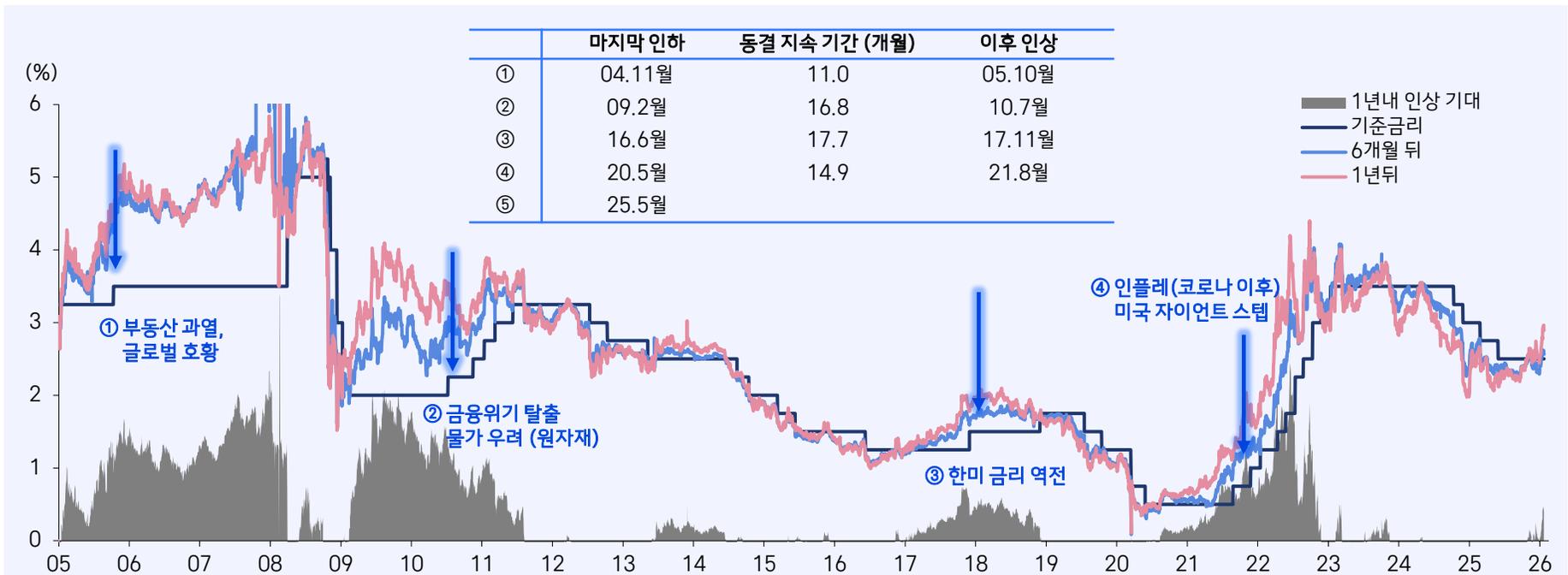
주: 1월 26일 기준, 자료: Bloomberg, CEIC,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정책 고개 드는 인상 우려

'26.2월 금융시장 전망

선도시장은 하반기 인상 예상. 과거 인상 전환 시기 점검

- 03년 이후 인하 후 동결기 지속 기간은 평균 15개월. 작년 5월 마지막 인하였던 점 고려, 올해 8월이 15개월 도래 시점
- 선도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 25bp 인상을 프라이싱 중. 과거 인상기 특징 점검 후 현재 경기 판단에 대입해보고자 함



주: 1월 26일 기준, 자료: Bloomberg, CEIC,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정책 인상 전환 조건

'26.2월 금융시장 전망

과거 인상기 점검

인상 전환	2005년 10월	2010년 7월	2017년 11월	2021년 8월
특징	카드사태 극복과 글로벌 경기 호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상화	저성장 속 완만한 금리 인상	팬데믹 이후 빠른 긴축 전환
직전 동결기	11개월 (2004년 11월 3.25% 결정 후 유지)	16개월 (2009년 2월 2.00% 결정 후 유지)	17개월 (2016년 6월 1.25% 결정 후 유지)	15개월 (2020년 5월 0.50% 결정 후 유지)
기간	2005년 10월 ~ 2008년 8월	2010년 7월 ~ 2011년 6월	2017년 11월 ~ 2018년 11월	2021년 8월 ~ 2023년 1월
인상폭	3.25 → 5.25%	2.00 → 3.25%	1.25 → 1.75%	0.50 → 3.50%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과열 (강남 중심 아파트가격 상승, 가계대출 급증) - 연준 긴축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04.6월~) - 인플레이션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자 반등 (위기 이후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 - 물가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 - 출구 전략 (위기 시 풀었던 유동성 회수, 정책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부채 억제 (금융불안 관리 목적의 긴축 정책) - 한미 금리 역전 (연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본 유출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인플레이션 (공급망 우려와 러-우 전쟁으로 물가 상승) - 미국의 자이언트 인상 (연준의 공격적 인상으로 인한 환율 우려) - 자산 가격 상승 (급등한 부동산 및 자산가격의 정상화 유도)

⇒ 공통점: 1) 금융불균형 심화, 2) 한미 금리차 역전, 3) 실물지표의 회복

주: 1월 26일 기준, 자료: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정책 인상 전환 시 물가, 주택가격, 환율 흐름

'26.2월 금융시장 전망

인상 전환을 앞두고 물가는 2% 중반 흐름, 주택가격 오름세, 환율은 제각기

-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오름폭 확대. [주택가격] 아파트가격 상승폭 확대가 1년 이상 지속
- [환율] 원/달러 흐름은 시기마다 다르지만, 연준의 긴축 전환은 언제나 한은의 기조 변화를 자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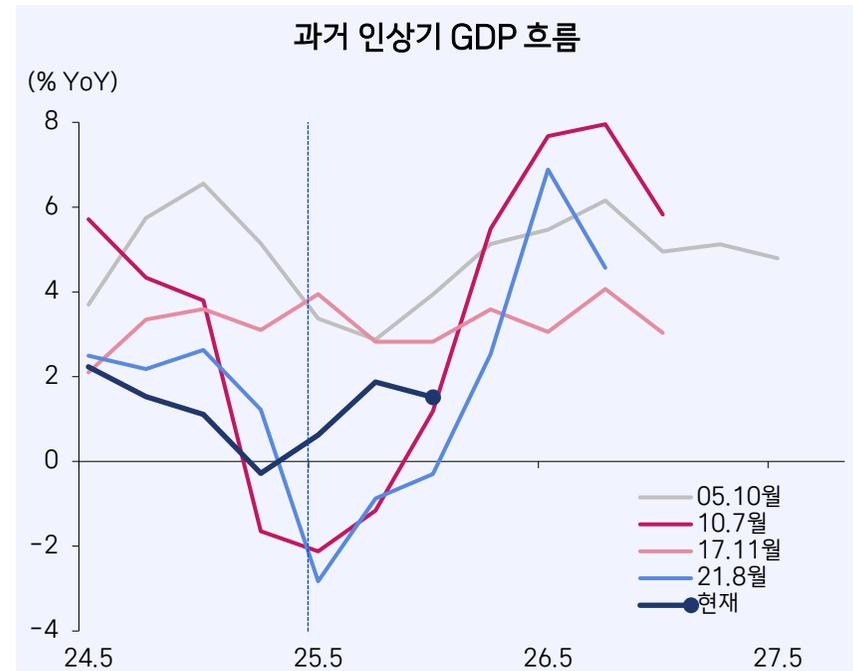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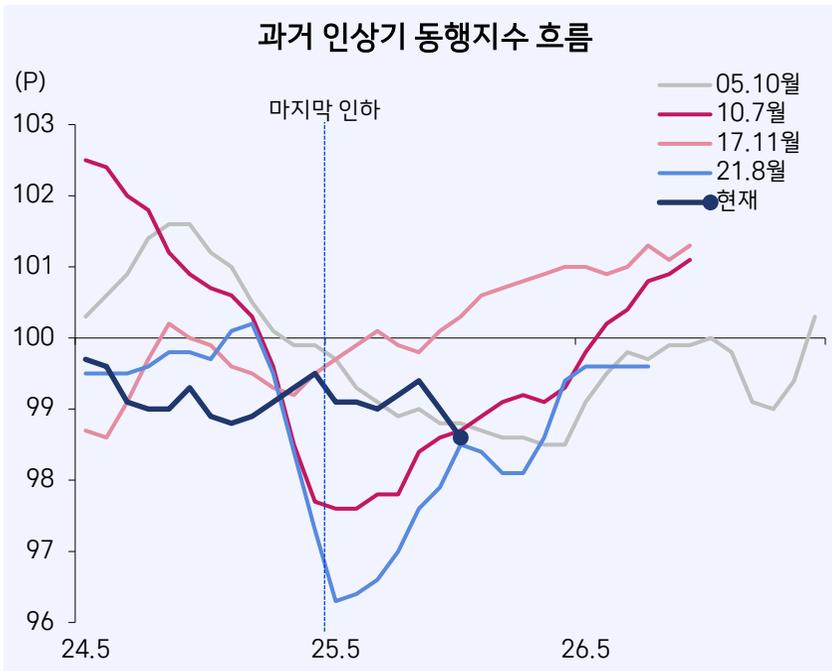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EIC,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각 시기별 선이 끝나는 지점은 첫 인상. 1월 26일 기준

경기 인상 전환 시 동행지수와 GDP 흐름

'26.2월 금융시장 전망

인상 전환을 앞두고 동행지수는 기준치 웃돌며 상승세, GDP 성장률 3% 이상

- [동행지수] 기준치를 상회하거나, 저점대비 3~4p 반등
- [GDP] 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3~4%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



자료: Bloomberg, CEIC,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각 시기별 선이 끝나는 지점은 첫 인상, 1월 26일 기준

정책 금융 요소 모니터링 필요

'26.2월 금융시장 전망

과거 인상기 시사점과 현재 판단

		과거 시사점	현재 판단	결론
금융	물가	- 2% 중반을 상회하는 흐름 5~6개월 연속 지속 - 물가상승률 경로 3분기 이상 오름세	- 작년 기저효과에 올해 5~8월 물가 2% 중반대 예상 + 트럼프의 저유가 정책의 원자재 인플레이 제한적	[주의] 여름 전후 물가상방 압력 4분기 물가 빠른 안정 확인 필요
	주택가격	- 아파트가격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 - 인하 종료 이후에도 계속되는 가격 상승	- 인하 종료 후에도 높은 가격 상승세 지속 - 서울 기준 전주대비 +0.2~0.3% 오름세	[위험] 풍선효과 모니터링 필요
	환율	- 환율 수준과 무관하게 연준 인상에 연동	- 높은 환율 수준을 부담이나 연준 인상 시점 요원	[안전] 연준 당분간 동결, 인상 시기상조
경기	동행지수	- 기준점(100)을 웃도는 흐름에서 우상향 - 인하 종료 이후 반등세 지속	- 반등 시도하다 재차 하락, 기준점 지속 하회 - 건설기성과 내수출하 항목 중심으로 부진	[안전] 양극화된 경기 온기 물량 성장, 건설경기 회복 필요
	GDP	- 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3%를 웃도는 성장세	- 상고하저, 상반기 2% 중반, 하반기 2% 내외 전망	[안전] 경기 반등의 지속가능성 선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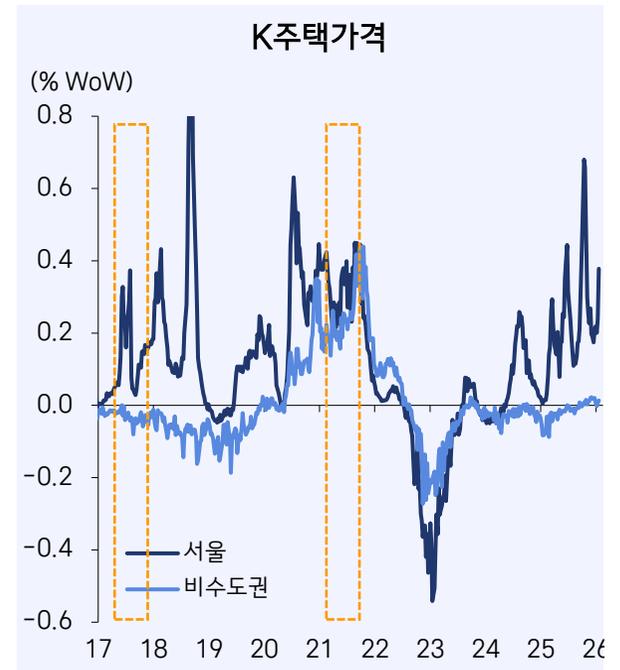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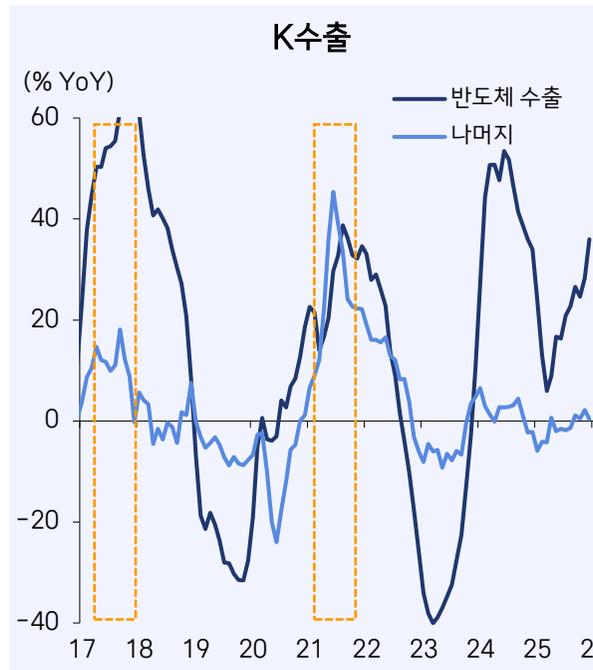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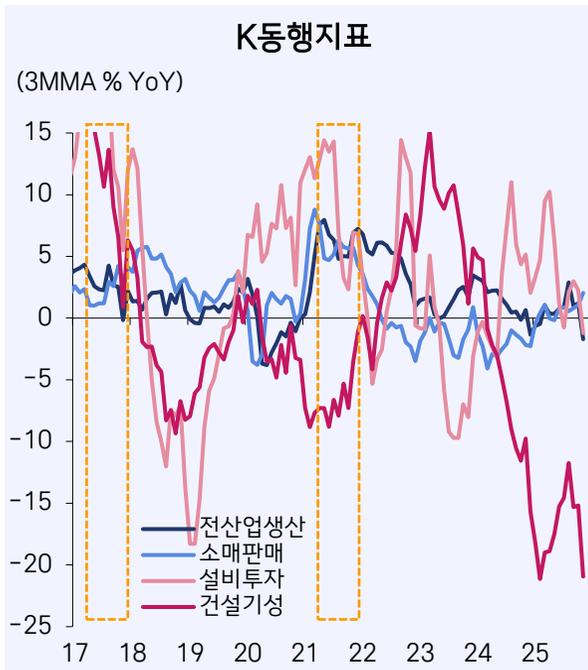
주: 1월 26일 기준, 자료: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경기 현재는 과거와 다른 K자형 흐름

'26.2월 금융시장 전망

K자형으로 양분화된 경기와 금융불안은 설불리 인상하기 어려운 환경

- 소비는 반등하고 있으나 vs. 생산과 투자는 주춤, 건설경기는 재차 하강
- 반도체 수출은 40%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거나 vs. 나머지 품목은 지지부진
- 부동산 과열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나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0%로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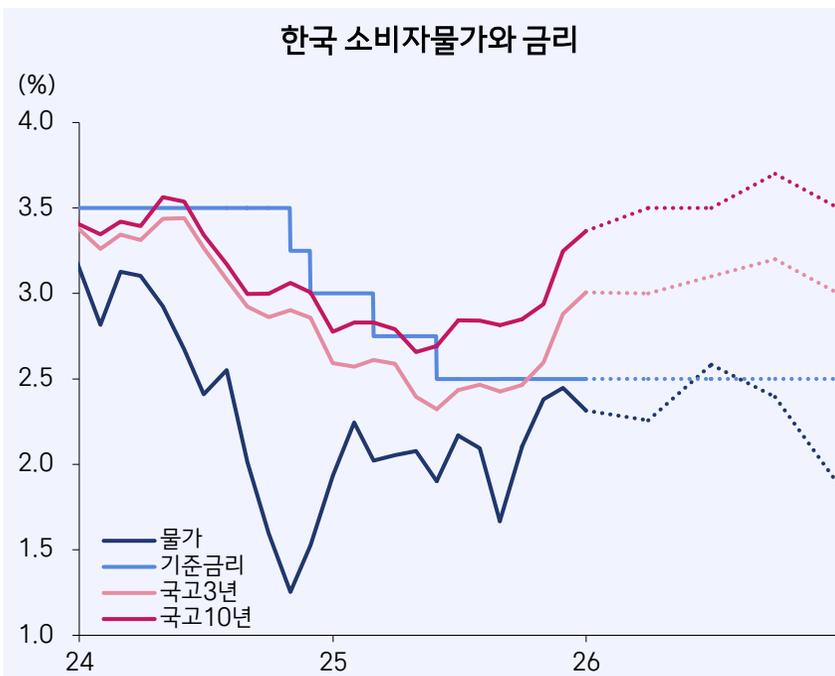
주: 1월 26일 기준, 자료: Bloomberg, CEIC,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결론 인상 우려에 추경 부담 가중. 투자 의견 중립

'26.2월 금융시장 전망

하반기 인상 우려 속 추경 부담까지 가세. 대외 금리 상승에 연동 흐름 전망

- 2월 금통위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상향 조정 예상. 마지막 인하 이후 과거 평균 동결 지속 기간 고려 올해 여름 인상 경감 주의
- 미국의 인하 기대감 후퇴와 연준의 연내 동결 전망에 맞춰, 국고채 금리도 추가 상방 압력 우세. 투자의견 중립 제시
- 당초 예상(2분기)보다 빨리 들어온 추경 우려에 규모 구체화 전까지 커브는 스티프닝 압력 우세하다고 판단



한국 금리 전망 테이블

	1Q26	2Q26	3Q26	4Q26
기준금리	2.50	2.50	2.50	2.50
국고 3년	3.00	3.10	3.20	3.00
국고 10년	3.40	3.50	3.70	3.50
3/10 스프레드	0.50	0.40	0.50	0.50

주: 1월 26일 기준, 자료: Bloomberg, CEIC,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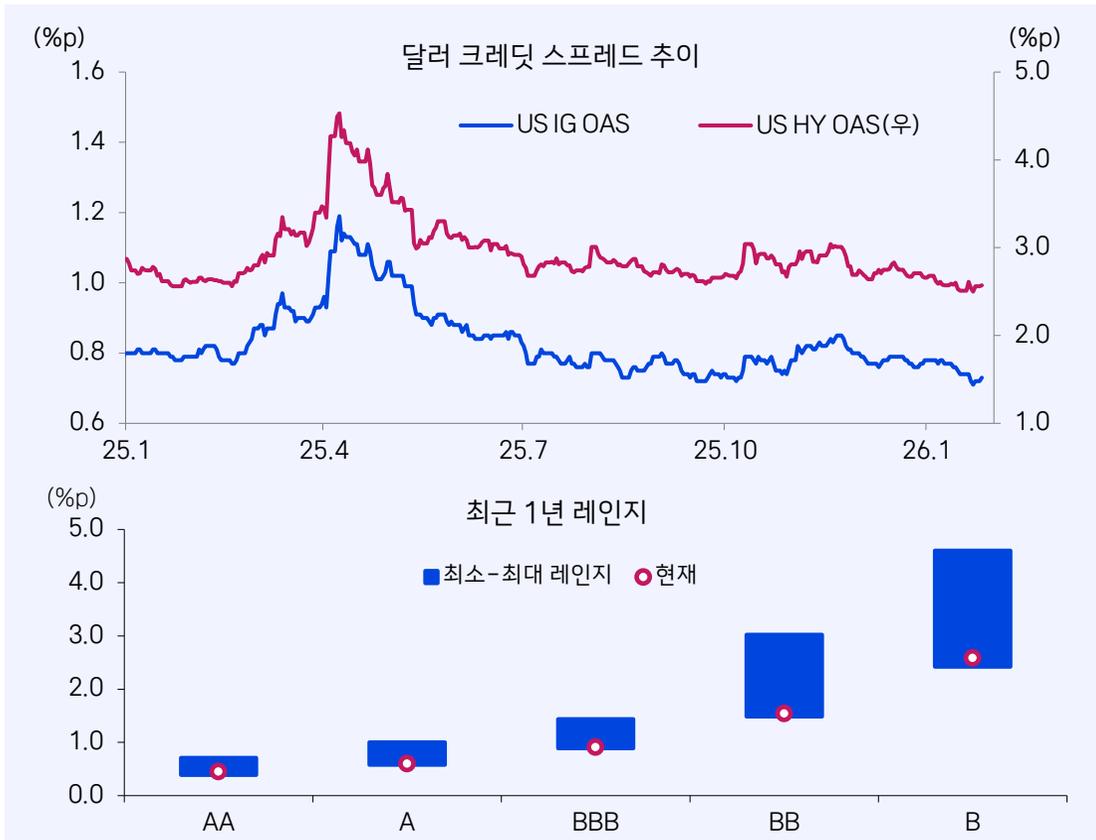
'26.2월 금융시장 전망

해외 크레딧

해외크레딧 투자의견 중립 유지 3·12개월 모두 중립

'26.2월 금융시장 전망

IG 및 HY 역사적 저점 수준에서 좁은 레인지 등락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1월 26일 기준

달러 크레딧스프레드 추가 강세

- 국채 금리 변동성 확대에도 스프레드 강세
- 캐리 수요 지속 유입

스프레드 부담 여전, 이자수익 중심 전략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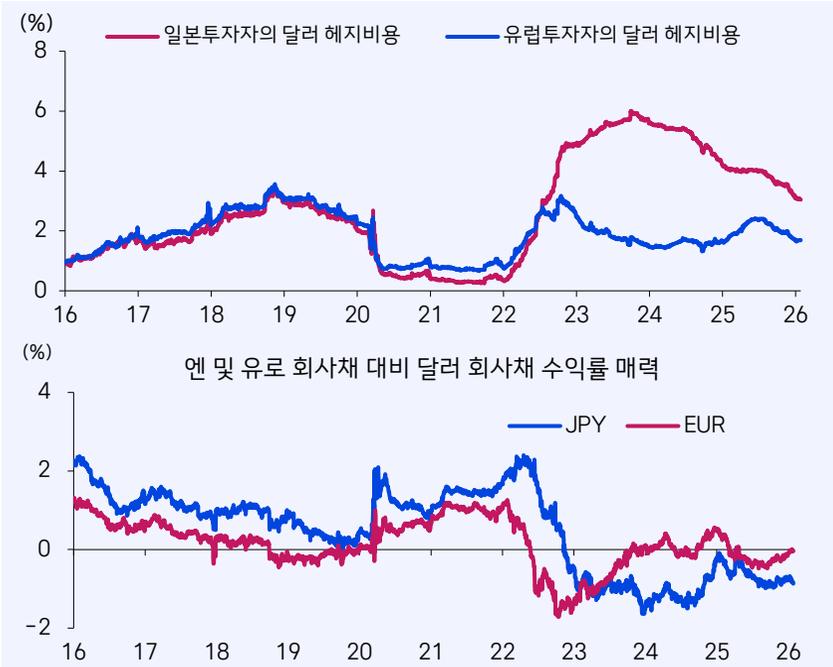
- 크레딧 스프레드 역사적 저점 수준 부담
- 절대금리 매력 및 해외 투자자 유입 유인 개선, 위험자산 선호 환경 지속에 따라 단기적으로 스프레드 상단 제한

스프레드 축소에도 상대적 투자 매력 IG 절대금리 개선

'26.2월 금융시장 전망

해외투자자 캐리 수익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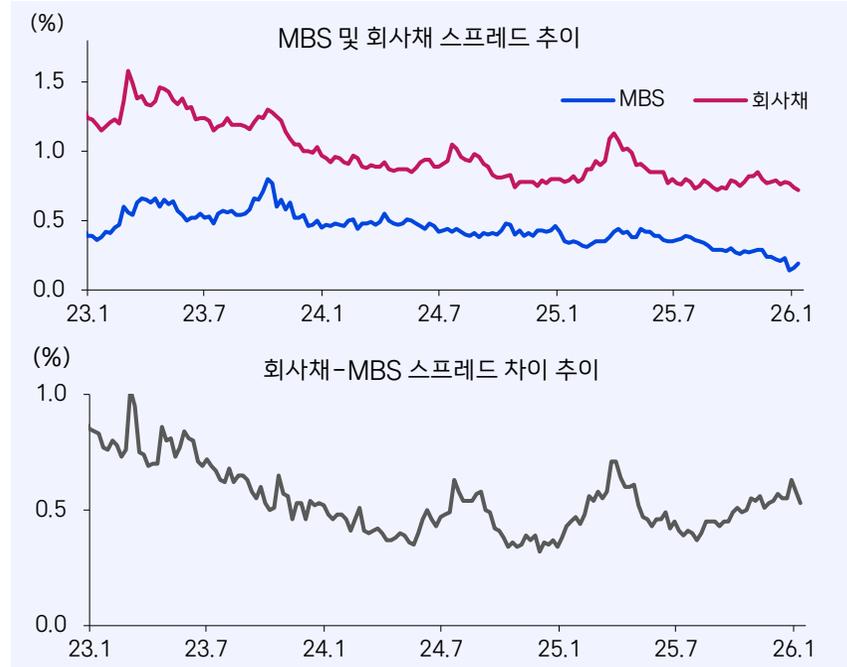
- 유럽·일본 금리 상승에 달러 헤지 비용 축소
- 절대금리 측면에서 투자 매력 개선



주: 1월 26일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MBS 대비 투자 매력

- MBS 매입(2천억달러) 정책에 MBS 스프레드 큰 폭 축소, 상대적으로 IG 크레딧 캐리 매력 높아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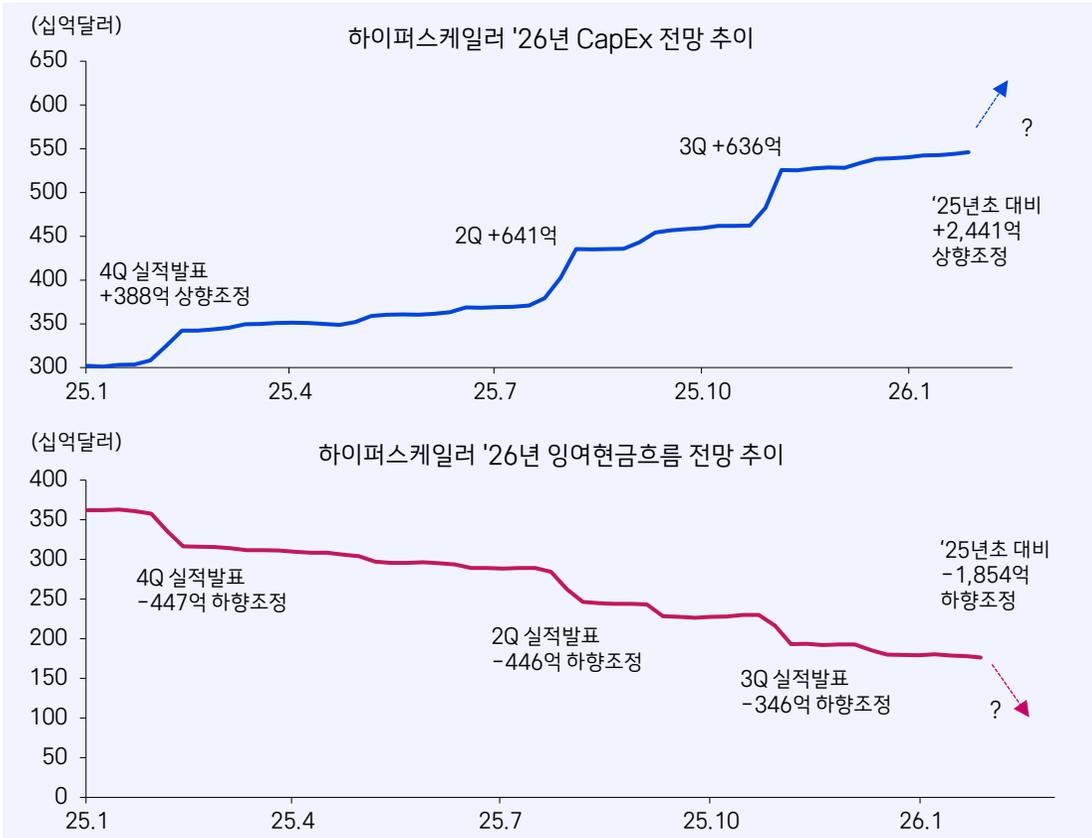


주: 1월 26일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빅테크 실적발표, 추가 CapEx 확인 필요 조달 확대 위험

'26.2월 금융시장 전망

'26년 CapEx 추가 확대 시, 크레딧 시장 수급 부담 확대



1분기 실적발표 경계

-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조달 확대로 채권 발행 경계감 높아진 상황
- 통상 실적발표 시즌에 CapEx 큰 폭 조정
- 추가적인 CapEx 상향조정 시, 잉여현금흐름 악화 및 추가 회사채발행 부담에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요소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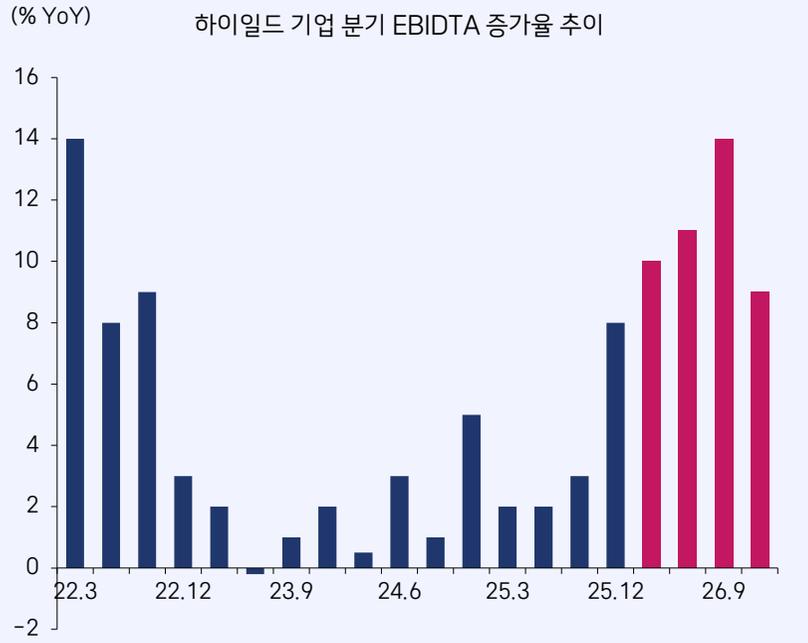
주: 1월 26일 기준, 자료: JPMorgan Reserach,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하이일드 투자의견 중립 유지 이익 개선에도 스프레드 부담

'26.2월 금융시장 전망

'26년 이익 개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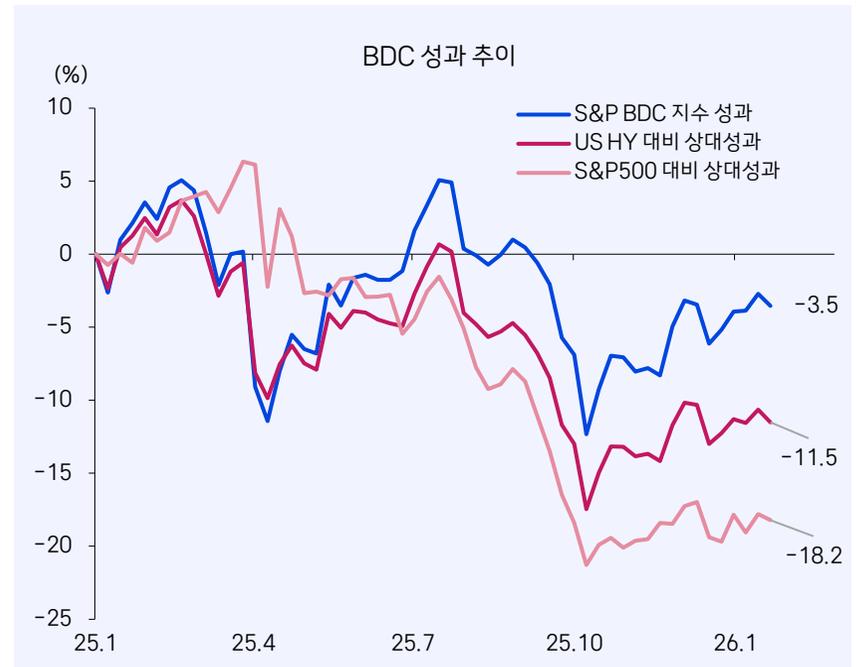
- '25.4분기부터 본격적인 기업이익 턴어라운드 기대
- '26년 연간 이익 11% 증가 전망(컨센서스)



주: 붉은 색은 Factset 전망 컨센서스, 1월 26일 기준
 자료: Factset, Morgan Stanley,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BDC 및 사모대출 파산 위험

- 하이일드 시장과 사모대출 시장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크지 않으나, BDC 및 사모대출 파산 확대에 인한 하이일드 시장 투자심리 저하 및 전이 모니터링 필요



주: 1월 26일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삼성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주식회사

066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대표전화 : 02-3774-7600 콜센터 : 080-377-4777 [상담시간안내 :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